

미국에서 나고 자란 딸, 중국에서 온 엄마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여자들의 이야기



조이 럭 클럽

에이미탄 지음, 이문영 옮김, 들녘, 1만7000원

웨인 왕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져 큰 사랑을 받은 '조이 럭 클럽'은 중국계 미국인 이민 2세대 여성 작가 에이미 탄의 장편소설이다.

소설 속 엄마들은 중국이 전쟁과 사회 격변으로 혼란스럽던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 느릿한 기선을 타거나 홍콩-베트남-필리핀-하와이 등 정말 '오만 군데'를 다 경유하는 비행을 타고서.

그때 그들의 가슴에는 희망이 있었다. '미국에 가면 날 닮은 딸을 낳을 거야. 그곳에서는 늘상 풍족할 테니 슬픔으로 배 채울 일이 없고 그애를 알잡아볼 사람도 없어. 그애가 완벽한 미국식 영아만 하게끔 가르칠 테니까.'

'조이 럭 클럽'은 그렇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엄마들의 마작 모임이다. 조이 럭 클럽에서 그들은 배 타지게 먹고 웃

고 마작을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나간 좋은 날들과 앞으로 찾아올 더더욱 좋은 날들에 대하여. 비록 가슴속에는 중국에서 겪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으나 희망과 기쁨이 있었기에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자는 늙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딸이 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딸은 중국에서 온 엄마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와 딸은 아마 평생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인지도 모른다.

딸은 정말 엄마의 자리에 앉아 온전히 엄마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을까. 과거에 엄마를 살게 했던 소망이 오늘의 딸을 살아 가게 하는 생명력이 될 수 있을까. 소설 '조이 럭 클럽'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주인공들의 각기 다른 맛 일상 그려낸 SF

한국과학문학 대상 만장일치 수상 작가 신작



피클보다 스파게티가 맛있는 천국

김준범 지음, 고블, 1만7000원

사회의 아이러니한 면모를 우스꽝스러운 스토리에 담아 온 김준범 소설가가 '피클보다 스파게티가 맛있는 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번 소설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사회 풍속도를 여러 방면에서 뜯어 내 그 부조리한 측면을 코믹하게 고발하는 동시에 SF소설만이 줄 수 있는 지적 쾌감을 선사한다.

매주 한 모금과 담배 한 개비가 살인과 맞먹는 처벌을 받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숨 한 번 들이쉬었다고 죽어버리는 세상에 던져진다면? 인간과 닮은 생명체를 만들어낸 인간들이 그 생명체들이 일구어낸 문명을 착취한다면? 구조조정을 앞둔 해산물 밀키트 공장의 제품 속 문어가 말을 걸어 온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억울함'이라는 정념으로 가득 차 있다. 보편적인 정서로 확대

된 이 '억울함'은 종종 잘못된 대상을 향한 분노로 수렴되기도 한다.

작가는 소설 속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인물들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재현하여 어떻게 그 억울함이 잘못된 대상에게 전가되는지 보여 준다.

'악마와 함께 춤을'은 지역 공장의 허점을 찾아 구조조정을 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말하는 돌연변이 문어'를 만나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야기다.

한편으로 작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풍자의 미학으로 재창조해 낸다. '프레임'에서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차를 팔아 고객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동차 딜러가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진 세계에서 전염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SF 블랙미디 소설들이 서로 다른 맛을 자아내는 '피클보다 스파게티가 맛있는 천국'이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365일 좋은 날”... 일출 소망 ‘한마음’

을사년 새해맞이 대체로 차분 무안 참사로 지자체 행사 취소 간절곶엔 새벽 5시부터 발길 경남 유람선 26척 해맞이 출항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첫날, 전국 일출 명소마다 새해 첫 해를 보며 소망을 비는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가 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다투어 일출 사진을 업로드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세밑을 보낸 시민들은 그럼에도 힘차게 떠오른 새해를 맞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독도의 2025년 첫 일출 사진을 공개했다.

서경덕 교수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아침 독도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찍어 보내줬다. 이 사진 한 장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서 '초대형 드론쇼'를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독도 상공에서 펼쳐지는 드론쇼는 다국어 영상으로 제작, 누리꾼들에게 독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에 선보이는 '독도 애니메이션'이 전세계에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반도 육지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에도 해맞이 인파가 몰렸다. 오전 5시경부터 간절



곶 등대 앞 광장에 해맞이객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 데다 살에는 바닷바람까지 기승을 부렸지만 해맞이객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라·햇팩 등 방한용품 등으로 체비를 하고 해안 곳곳에 모여 동해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육지에서 제일 높은 해발 1915m의 지리

산 천왕봉에서도 일출 행렬이 이어졌다. 지리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장터목·세석·벽소령·치발목·노고단·연화천 등 대피소 6곳에서 숙박 예약을 받았다. 각 지자체 케이블카도 평소보다 이른 오전 5시30분부터 새해 일출 관광객을 받았다.

선상 해맞이로 유명한 경남 남해안에서도 3300여 명이 유람선 26척에 나눠 타고 스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인에게 받은 독도의 2025년 첫 일출 사진을 공개했다. 1일 한라산 백록담을 찾은 해맞이 등산객들이 일출을 바라보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일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을 찾은 시민이 2025년 첫 일출을 하트 모양으로 만든 손 안에 담고 있다. 서경덕 페이스북·연합뉴스

통영시 비진도·장사도 앞바다 △거제시 외도해금강·거가대교 앞바다 △사천시 신수도·수우도 인근에서 첫 태양을 맞이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4일까지 이어지는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해돋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음악·풍물 공연을 하지 않는 형태로 축소 진행했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김혜자



배철수

“을사년 활약 기대”... 뱀띠 스타 누구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이 밝으면서 뱀띠 스타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1941년생 뱀띠 배우 중에는 ‘국민 엄마’ 김혜자가 눈길을 끈다. 김혜자는 올해 JTBC 새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으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1953년생 뱀띠 연예인 배철수도 새해가

특별하다. 1990년 3월부터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 DJ로 활동해 온 그는 올해 35주년을 맞이한다. 1965년생인 방송인 김국진도 뱀띠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화술과 유머로 MBC 장수 토크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를 16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다.

1977년에 태어난 방송인 전현무도 올해가 기대되는 스타로 꼽힌다. 전현무는 지난해 고정으로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이 22개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 왔다. 다음 작곡이 기대되는 1977년생 스타로는 배우 김희선·박해일·김현주·원빈 등이 있고 ‘월드스타’ 싸이도 눈에 띈다.

1989년생 스타 중에는 2세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티파니·태연·효연·유리 등이 있다. 4세대 그룹으로 활동하는 2001년생 뱀띠 스타에는 그룹 잊지의 류진과 채령·에스파의 윈터·르세라핌의 허윤진·라이즈의 성찬 등이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싸이



태연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북조선 인텔리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목숨 건 탈북 여정! 세 번 탈북, 세 번 체포... 中연길 감옥, 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이다”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 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채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핵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대표)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닦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한원채 지음

행복에너지

15,000 원

